

서정 시학 교육을 위한 서정 정신 연구

구 영 산*

<차 례>

- I. 서 론 - 서정 정신의 재개념화
- II. 서정적 자아와 서정 정신
- III. 서정 정신과 서정적 자아의 실천
- IV. 결 론 - 시학과 교육학의 만남

I. 서 론 - 서정 정신의 재개념화

이 글의 목적은 서정 시학의 일부를, 글쓰는 이의 서정 정신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구체화하는 데 있다. 국어교육 내에서 서정 시학 교육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서정성 자체에 대한 개념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정성의 개념에 대한 이론사를 훑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접근 방법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자 한다. 서정 시학에 있어서의 고전이라 할 만한 동일성(同一性)의 시학에 대한 견해를 받아들이는 정도에서 연구사를 수용, 오히려 시 작품 자체로 돌아가 이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서정 시학 이론이 서정시 작품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점에서 잘못됐는지, 그럼으로써 그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해체되어야 하는지를 드러내 보이는 데 보다 주력하고자 한다. 그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이 자

*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리에서는 우선, 글쓰는 이로서 시인의 정체성 문제에 주목하여, 기존의 서정 시학에서 소위 서정적 자아로 칭해지는 시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왜곡했는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특히 서정적 자아가 작품 세계 안에서 가공된 채 작품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미적인 주체로 구성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이 사회적인 맥락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음을 작품으로부터 출발하여 고구해 보고자 한다.

서정 시학은 일반적으로 동일성의 시학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이때의 동일성은, 언어를 매개로 자아와 세계가 정서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하나가 되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보편적이다.¹⁾ 그러나 서정 시학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는 실제 그 구체적인 상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 원인을 따져 보건대, ‘동일성’ 내지는 ‘하나가 되는 상태’라는 표현은 일종의 비유 내지는 이미지로, 그것 자체로서 충분한 설명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에 기인한다고 판단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개념어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작적 정의가 안고 있는 태생적 한계로 보게 될 경우 그다지 문제적인 소지가 있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상이나 개념에 대한 정의는 그 자체로서 현상이나 개념에 대한 인간의 이해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볼 때, 현재 동일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 다시 말해 서정 시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 정도가 바로 이 지점에 머물러 있음은 문제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서정 시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여기에서 나아간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현대시에 나타나는 ‘서정적 자아’에 대한 상이 그것인데, 한 논자는²⁾ 자아와 세계의 합일을 추구함에 그 본질을 두고 있는 서정적 자아는 문명의 시대로 대표되는 현대에 있어서는 하

1) 주체와 객체 간의 간격 부재 상황을 지적하며 서정적인 상호 융화를 회감(回感)이라고 표현한 슈타이거나, 대상성의 내면화를 통한 정조화된 내면성 혹은 내면적 정조성에서 서정시의 본질을 찾은 카이저 등과 같은 일군의 시학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견해는 뒷받침된다(E. Staiger, 이유영·오현일 옮김, 『시학의 근본 개념』, 삼중당, 1982, 95~96면; W. Kayser, 김윤섭 옮김, 『언어예술작품론』, 대방출판사, 1982, 521면).

2)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95, 29~32면.

나의 이상(理想)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단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자취를 찾고자 한다면 합일의 과정에서 대립이나 갈등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극복함으로써만 자아와 세계간의 합일 가능성을 보게 된다고 제언한다. 다시 말해 현대의 서정적 자아는 세계와의 갈등을 인위적으로 극복함으로써만 합일의 경지를 상상할 수 있게 된다고 보고 있음이다.

이러한 견해는 서정 시학을 개진함에 있어 다음 두 측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번째 측면은 서정적 자아가 언어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의 문제이다. 시 쓰기를 통해 서정적 자아로서의 시적 화자가 세계와 합일되는 경험을 갖게 됨이 가능하다고 보는 관점의 이면에는 언어가 세계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가 과연 유효한 것인지를 묻고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서정적 자아가 언어에 대해서 보이는 이러한 태도가 의사소통의 도구나 수단으로 언어를 대하는 태도의 수준은 뛰어넘은 바 있겠으나, 가령 기표와 기의간의 불확정적인 의미 관계 속에서 언어가 과연 세계의 본질을 드러냄으로써 시적 화자에게 대상성을 내면화하는 순간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선 논자는 이에 대한 해답을 갈등의 극복에서 찾고 있는지도 모르며, 이는 위의 서정적 자아상이 갖는 두번째 미덕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서정 시학의 경우에서 기대할 수 있는바, 기표와 기의간 확정적인 의미 관계 아래 자아와 세계가 상호 침투하는 모습은 분명 우리 서정 시학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언어가 세계와의 접선에서 계속적으로 미끄러짐을 겪으면서 인간과 세계 사이에는 비약 내지 단절이 생기게 되고,³⁾ 이는 인간이 세계와의 합일을 꿈꾸는

3) 커버는 퍼스 C.S. Peirce의 견해를 빌어 인간의 자아는 선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호의 산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후기구조주의자의 입장에 따르면 기호에 고정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이로 인해 기호의 기표와 기의 사이에는 필연성의 관계 없이 자의적이고 유희적인 관계만

서정 시학의 기조에 균열이 생겼음을 의미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인간과 세계 사이에 생긴 거리감은 상호 이해의 정도를 떨어뜨림으로써 인간이 세계와 합일의 경지를 상상함에 있어서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갈등의 극복을 서정 시학을 이루는 주요 요건으로 지적한 논자의 혜안이 엿보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이후 현대의 서정 시학을 내세움에 있어, 위의 견해는 과거의 그것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논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갈등을 전제로 한 동일성’의 구체적 모습이 불분명하거나 이대로라면 갈등의 결과 이르게 되는 동일성의 상태 또한 과거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보다 근원적으로는 현대의 서정 시학을 여전히 동일성의 시학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으로부터, 이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시 쓰기를 통해 서정적 자아가 경험하게 되는 세계와의 합일 상태는 어떻게 특징지어져야 하는가 하는 점은 재고를 요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이에 본고는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조금은 우회적인 논의 방식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현대의 서정 시학을 재개념화하려는 여러 논자들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과거 선학들의 연구물에 견주어 소위 패러다임적 변화라 일컬을 만한 논의의 진전을 보이지 못한 원인의 하나에는, 서정 시학의 본질을 인간의 의식 차원에서만 해명하려 한 데에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실제 인간이 세계와 만나서 소위 동일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의식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이 인간의 의식을 통제하고 어떤 의미에서 지배하는 것은 바로 언어이며⁴⁾ 이 때의 언어는 인간의 ‘실천’과 맞물려 있고 그럼으로써 의미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 동일성의 시학은 과연 인간의 의식 차원에서만 탐구되어야 하는 일인지 그리고 이 때의 의식은 세계로부터 독립되어 자기충족적인 상태에만 머무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

이 있게 된다. 그리고 이는 ‘자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관여하게 된다 (Anthony Paul Kerby, “The Language of the Self”, *Philosophy Today*, Fall, 1986, p.210).

4) R. Kuhns, *Literature and Philosophy*, Routledge & Kegan Paul, 1971, p.104.

을 갖게 된다.

인간과 세계의 만남으로부터 서정 시학이 쓰여지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시학의 역사 대부분은 서정적 자아의 의식,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서정적 자아의 자기독립적인 의식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음은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는 방식을 기반으로, 인간이 자신의 삶에 저마다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세계관이라 칭해 본다면, 서정적 자아인 시적 화자의 세계관에 의하여 인식되는 바가 서정 시학의 근간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세계관에 의하여 서정적 자아의 의식 속으로 ‘내면화된 세계’는 왜 늘 완결된 상태에서 완상(玩象)의 대상으로만 머물러야 하는가. 오히려 이 내면화된 세계가 서정적 자아의 실제 세계를 바꾸는 실천력을 지닐 수는 없는 것인가. 물론 아니라는 판단 아래 이 글은 쓰여지기 시작했고, 그 구체상을 보여 가는 가운데 인간과 세계가 조우해 내는 서정 시학의 일부가 밝혀지리라고 판단한다.

그 과정에서 본고는 의식적으로라도 시학 일반론은 지양할 생각인데, 서정 시학이라는 명분 아래 쓰여진 이론들이 그 스스로 이론의 위치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 작품 및 문학사 속에 등장하는 서정적 양상의 다양함 모두를 아우르는 데는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⁵⁾ 서정적인 것의 일반 특성을 도출해 내는 일 대신에 실제 작품의 구체적 관례에 입각하여 파악 가능한 서정적 양상의 서술에 힘쓰고자 한다. 그러는 가운데 개체에 대한 충실한 기술들이 상승 효과를 일으키며 보편성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고가 택한 논의의 방식은 글쓴이의 태도 차원에서 서정 시학의 일부를 구체화하는 일이다. 시 쓰기 자체가 시를 쓰는 인간에게 기대하는 사회문화적인 관습에 반응하는 일인 만큼, 글쓴이는 서정적

5) 르네 웰렉은 관념적이고 주관적인 서정시 논의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데서 나아가, 그것들이 명료하게 논증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술의 특질에 적절한 것으로 보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서정적인 것의 일반적인 본질을 정의하려는 계획들은 포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Paul Hernadi, 김준오 옮김, 『장르론』, 문장, 1983, 29면).

자아로서 서정성⁶⁾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결정하고 의미를 생산함으로써 서정적 자아로서 자신은 어떠한 인간이 되겠음을 천명하는 바 된다. 그리고 이 때의 서정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언어를 통해 구현되는 과정에서, 글쓴이는 서정성을 재개념화하게 된다.⁷⁾ 서정적 자아로서 글쓴이의 세계관을 그의 서정 정신으로 수렴시키는 동시에, 장르 생산 행위로서 시 쓰기가 갖는 사회문화적인 실천력을 서정적 자아의 사회적 실천력으로 규정함으로써 본 연구 문제를 풀어 보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본고는 일군의 카프 시를 연구 자료로 택하고자 한다. 주지하듯, 카프 계열의 시인들은 시인으로서 자신들의 입지를 적극적인 대사회적 의식에서 찾았던 바, 그들이 시를 매개로 구현해 낸 시인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은 당대의 다른 시인들과 구별되는 바가 있다. 가령 임화와 같은 시인의 경우, 그는 이삼 십 년대 카프라는 문학운동단체에 몸담으면서 누구보다도 운동으로서 문학이 지녀야 자질을 강하게 주장했었다. 그리고 이는 그에게 있어 당대의 소명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 또한 여타의 시인들과 마찬가지로 정서적 요소를 낭만주의적인 시 장르의 고유 속성으로 인정하고 이를 현실과 융합시켜 형상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게 된다.⁸⁾ 이 지점에서 그가 방점을 둔 부분은 아마도 시가 지녀야 할 낭만성이었을 것이다. 본고 또한 여기서 주시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와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보다 엄밀히 말하면

6) 본고는 서정성이 시적 화자와 관련 없이 동떨어져 있는 인식 대상이나 인식 과정을 지칭하는 ‘속성’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오늘날 언어를 통해서 시적인 통찰을 얻고 있는 여러 ‘과정들의 체계(system)’이며 그 체계상의 ‘전체적인 효과(ensemble)’라고 본다. 이는 다음의 책에서 시사받은 바 크다(N. R. Hanson, *Observation and Explanation*, New York: Harper & Row, 1971, p.18.).

7) 시인의 정신이란, 시 작품이 현상하도록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정령(精靈)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철학적인 어법에 얽매이지 않는 가운데 예술이 그 스스로 철학적인 진리를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힘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이러한 맥락에 입각해 볼 경우 서정 정신은, 시가 앞서와 같은 진리를 자아와 세계 사이의 동일성 관계에 입각해 표현할 수 있게 하는 힘으로 이해할 수 있다(Theodor W. Adorno, *Gesammelte Schriften* 7. *Ästhetische Theorie*,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1972, p.134).

8) 윤여탁, 「입화의 시론과 서술시의 전개」, 『시의 논리와 서정시의 역사』, 태학사, 1995, 163면.

시를 쓰는 이에게서 발견되는 ‘시’라는 장르에 대한 의식이다. 누구보다도 먼저 세계를 향해 달려갔으나, 현실이 과장되게 표현되는 가운데 오히려 시를 쓰는 이로부터 그 세계가 멀어지는 순간, 글쓴이는 의식적으로 시 자체의 본질로 눈을 돌림으로써 그 세계를 온전히 껴안고자 했을 것이다. 시에서 정서적 요소를 강조한 점도 그렇거니와, 시를 쓰는 이 본연의 정체성, 다시 말해 서정적 자아로서의 자기 모습을 반영함으로써 현재 자신이 처한 혼란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카프 계열의 시들은 본고의 연구 자료로 가치가 있다. ‘抒情’이 그것의 미덕을 인정받으며 글쓴이들간에 권장되던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잊혀지거나 폄하되던 때 글쓴이로서 자기 수정을 거친 결과 도달한 결론이 ‘시 자체의 복원’이었다면, 글쓴이가 고군분투해서 이루고자 한 서정적 자아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그 소기의 성과를 자기 안의 의식 세계에 가두지 않고 사회로 환원함으로써 시 자체의 힘으로 세계를 적극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고 믿은 점에서, 현대의 서정 시학이 보여줄 인간과 세계간의 동일성의 상태, 그것의 특징은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는지를 카프 계열의 시들이 일정 부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

II. 서정적 자아와 서정 정신

카프로 대표되는 일군의 시인들이 문학사적 평가의 장에서 받게 되는 폄하의 기저에는, ‘시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왜 그러한 시를 썼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문학성이 없다고도 표현한다. 그러나 현상은 보이는 이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현현한다. 그래서 그것을 현상이라 부를 터인데, 그들에게 시인이라는 가면을 씌우기에 앞서 그의 삶 자체에 우선적으로 시선을 주게 되면 문제의 틀은 달라진다. 시인이 왜 그런 시를 썼느냐가 아니라, 사회의 변혁을 꿈꾸는 인간이 왜 시를 통해 그것을 시도하려 하느냐 하는 점으로 문제의 초점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前略…)

벌서 셋달!

동무들과갓치 아버지가 한테뭇겨×무소로넘어올째

그때도 너는 울지안코 너는손을흔들며 자동차를 따라왔다.

그러나 만일네가 만일네가

아버지 자식의사이를 자버제친 온 동무들과 우리들사이를 자버제친

이일을 네가 새로운 사업을위하여 생각하지안었다면은

너를이저바리지안코 너를한껏사랑하는 아버지는 마음노코 ×밥을 입에다 늦
치를못하였을 것이다.

너는 언제나 일에충실하고 지금도또한 충실한 것을

오늘도 그전에아버지가 건너다니든 노들강 어름판우를

영등포에서 용산으로 용산에서 영등포로

이어지는 귀중한명맥을 버선목집히숨기고

너는 혼자서 탕탕 어름을굴르며 건너스리라

그리고 또 박는새벽일을잊지안코

풋숨갓치 깃히자는 네등을두드리며 아버지는 조그만네가슴에 손을 언저 보고

네가슴 이시게처를 쭉쭉이맥치는 것을 한껏충찬한다.

빠르지도안케 느리지도안케 언제나 틀림업지

아버지나 너는 언제나 일에 한결가터야한다

그것한아만을 가슴속깊히 가지고잇서야한다.

(…中略…)

영리하고 귀여웁고 사랑스러운아들아 아버지는 요전에도네연필로 쓴편지를
생각하고

네가슴이 쭉쭉이 뛰고잇는 것을 칭찬하고

퍼렁이불자락을 쓰들어 어깨를덥고있다 일에 충실한 착한너를 생각하며

— 임화의 「오늘밤아버지는퍼렁이불을덥고」 부분

서정적 자아가 호명하는 ‘너’는 감옥에 아버지를 두고 있는 소년쯤으로 보인다. 그 소년은 아버지가 잡혀가는 순간에도 멀어져 가는 자동차 뒤로 손을 흔드는 의연함을 보일 줄 아는 이다. 혼자서도 노들강 어름 판 위를 탕탕 구르며 쭉쭉 건너는 모습으로 형상화돼 있듯이, 현재의 자기 일에 충실하며 아버지 없이도 세상을 헤쳐 나갈에 주저함이 없다.

자기 자신에게 목숨이 그러하듯, 세상살이에도 지켜내야 할 소중한 그 무엇이 있음을 아는 소년은, 버선목 깊이 그것을 감출 줄도 안다. 소년의 아버지가 그의 삶에서 지켜내고자 했던 가치를 소년 또한 무의식적으로 지니려 함이다.

소년의 아버지, 그가 자기 삶을 걸고 사수해야 할 가치는 둘이다. 하나는 아들, 다른 하나는 자기 삶의 철학이다. 자신의 아들이 잘못 자란다면 마음놓고 밥 한 술 뜨지 못하는 이가 소년의 아버지다. 아들이 자는 순간에도 등을 두드려 보며 소년의 존재함을 확인하고, 아들의 가슴에 손을 얹어 소년의 정신이 똑바로 살아 숨쉬고 있음을 지켜보는 마음 씀씀이는 부모 된 이가 아닌 그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것이다. 그런 소년의 아버지가 소년을 떠나 있게 되었을 때는 소년만큼이나 지키고 싶은 자기 삶이 있었을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보호한다고 하면 그 취지가 소박하거나 나약하게 들릴지 모르나, 사정을 두지 않는 세상살이에 파묻혀 본인의 삶이 왜곡을 겪지 않고 올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켜내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삶의 방식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소년과 소년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서정적 자아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는가. 소설이나 희곡의 경우와 달리 시를 쓰는 이가 그의 시에서 의도하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가능한 경우를 제시하는 데 있지 않다. 상대적으로 서정적 자아는 자신이 발견했거나 경험했다고 확실하는 생활의 진리를 재현해 보이려 한다. 그러한 이유에서 서정적 자아에게 있어서 세계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현상이 아니라 서정적 자아의 세계관을 경유하여 들어오는 현상의 의미 내지는 관념이 된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언제나 틀림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소년과 소년의 아버지, 그네들의 삶에서 서정적 자아는 ‘한결같은’이라는 통찰을 얻는다. 아버지에게 연필로 푹푹 눌러 적어 보낸 소년의 편지는 아버지 앞에서 보이려 하는 그 스스로의 다짐이다. 이를 늘 곁에 두고 매일같이 읽으면서 소년의 아버지 또한 퍼렁이불을 감내해야 하는 자기 삶의 원칙을 받아들인다. 소년이 아버지를 생각하며 충실히 자기 생활

을 지키고 소년의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며 자기 삶의 원칙을 지켜 가는 모습에서, 서정적 자아는 생활 속에 잠재돼 있는 진실을 찾게 되는 것이다.

시 쓰기를 통해 생활의 진실을 찾는 데서 서정적 자아의 서정 정신의 실체를 일부 확인해 보았으나, 여전히 다음과 같은 의문은 남아 있다. 생활의 진실을 왜 시를 통해 찾으려 하는가 하는 점이다. 어느 시인은 사는 일이 늘 반복 같지만, 그 반복 속에서 작은 매듭 하나를 한편의 ‘이 시’가 지었다고 생각되기도 한다고 말한다.⁹⁾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을 거듭하는 순환적인 삶의 양태를 보면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그것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거듭 순환한다 함은, 우리 삶에서 고정된 것이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이 그때 그때 변하는 상황 속에서만 언뜻언뜻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포말적 운명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왜 서정적 자아가 시를 통해 생활의 진실을 잡고자 했는지 이해가 될 법하다. 순간적인 삶의 일면이 인간의 의식 안에서 한껏 고양되어 나타나는 최고의 양식이 다름 아닌 시이기 때문이다.¹⁰⁾

(…前略…)

지금

우리들 青年의世代의 괴롭고 기인 歷史의밤

거문구름이 비바람 모올고 怒한물결은 山뎨이되어

悲劇의 거문바다우를 달니는오늘

그 믿업든 너도 돛을버리고돛줄을 끈어

오죽 한울과땅으로 소리도없는 絶望의 畵은노래를 뜻어 가만히 내뿜것
을 울닌다

9) 이는 다음의 책에서 시인 황동규가 한 말이다(최동호 편저, 『현대시창작법』, 집문당, 1997, 21면).

10) 현대성과 자이에 관련된 오래되지 않은 연구에서는, 현대사회가 분산되어 있듯, 자아도 파편화되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 맥락에서는, 탈중심화된 주체는 언어나 담론의 단편들 속에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된다고 본다(M. R. Wood and L. A. Zurichner, *The Development of a Postmodern Self*, New York: Greenwood, 1988).

오오 이것이 青年의 내죽업의 자장가인가
나는 참을수없는 沈默에서 몸을빼어 뒷척일 때
거칠 손에닿는 조고만 옛冊子를 머리맡에서 집었다

冊장은 옛과같이 活字의 縱隊를 이끌고
비스듬이 내손에서 땅을向하여 넘어간다

이곳 저곳에 곱게 내리건은 붉은줄
틈틈이 비인곳을 메인 낫식 내서투른 글씨
나는 房안 굻둑히 나를 사로잡은 沈默의 城들을 빼는
그 귀여운 옛冊의 날개소리에 가만히 감사하면서
프르루 最後의 한장을 헛되히 닷칠때
나는 天地를 흔드는 砲聲에 컷전을 마즌듯
꽉 가슴에노힌 氷囊을 부처잡고 벼개의깊은가슴에 머리를 파무뎠다

(…中略…)

벼개는 노래의 속삭임이아니라 偉大한 進軍의 발자국소리를
어둠은 별빛의 실이아니라 太陽의타는 熱과 눈부신光彩를
고요한 내病室에 흐득이는 내가슴속에 드러붓고있다.

저—긴 긴北國 러시아의 어두운밤
얼마나 더러웁고 편하게 그자들은 살고
얼마나 깨끗하고 괴롭게 그들은죽었는가
밝은것까지도 밤의 秩序로 進行되어가는
이 괴롭고 긴—밤
죽음까지도 시는 즐거움으로 부등켜안은 青年의 앞은 幸福을
나는 두눈을감어 아즉도 손바닥말에 고요히 뛰고있는
내 情熱의옛집에서 푹푹히 었들었다

— 임화의 「옛冊」 부분

시시각각 바뀌는 세상살이 속에서 생활의 진실을 발견해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정적 자아가 시 쓰기를 멈추지

않는 것은, 세계에 대한 자기 진실에 보다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그 스스로 세계 자체를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이다. 가령 위의 서정적 자아는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를 비극의 시대로 읽는데, 이는 서정적 자아가 세계를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 곧 태도를 보여준다.¹¹⁾ 믿었던 너마저 이념을 버리고 나와 연을 끊는 현실 앞에서 서정적 자아는 그것을 비극이라 칭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서정적 자아의 노래는 절망을 향해 가고 있다. 절망을 소리낼 수 있다면 이미 그것은 절망이 아닐 것이다. 공명하듯 귓전을 맴돈다고 밖에는 그것의 존재에 대해서 달리 전할 길 없는 서정적 자아는, 참을 수 없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몸을 빼낸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리 없는 절망을 깨는 방법을 서정적 자아는 알지 못한다. 다만 손에 닿는 대로 집어든 옛책이 내는 책장 소리에 감사할 뿐이다. 그러나 날장과 날장이 만나 내는 그 미미한 소리의 파동은 서정적 자아에게 포성파도 같은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온다. 이내 서정적 자아의 가슴팍에는 싸늘한 기운이 묵직하게 자리잡는다. 아마도 ‘인간의 삶이란 것이 원래 이러한 모습으로 있었거늘.’하는 식의 깨달음일 것이다. 냉혹한 현실을 맞는 냉철한 감수성이 그것이다.

이로 보건대 인간이 세계에 대해서 인식하기를 포기함으로써 해석하는 법을 얻게 된다고는 하나,¹²⁾ 서정적 자아가 세계와 합일하는 지점에서 세계에 대한 해석조차도 뛰어넘는 바가 있다. 이러저러한 해석 끝에 세계가 내 몸인 양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절망의 침묵을 일개의 날장 소리가 깨는 것처럼, 논리성이나 순차성을 뛰어넘은 곳에서 우리는 생활의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순정한 의미에서의 인간과 세계간의 합일은 이제 이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선언한 어느 시학자의 견해에 대해서 본고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바 있

11) 비극 자체가 인간이 세계를 해석하는 태도를 뜻한다는 의미이다(K. Jaspers, 황문수 옮김, 『비극론·인간론』, 범우사, 1990, 290면).

12) R. Rorty, *Philosophy and the Mirror of Natur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p.325.

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세계가 합일하는 지점을 찾는다면 그것은 인간이 세계와의 갈등을 극복하는 순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극복이라 함은, 굳이 그것의 사전적인 의미를 논하지 않더라도 어렵고 힘든 일을 이겨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면에는 인간의 의지만 있으면 그 의지대로 세상을 재편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내지는 오만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듯 인간이 세계와의 동일성을 선취하는 순간이 장애를 만나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오는 것이라면, 굳이 서정적 자아가 시를 통해 “옛책의 날개소리”를 꺾전에 맞은 “天地를 흔드는 砲聲”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가슴에 놓인 氷囊”을 부여잡고 서정적 자아가 맞이한 것은 “太陽의 타는 熱”과 “눈부신 光彩”였음을 기억해 두자.

현대의 서정 시학을 논함에 있어 인간과 세계 사이의 갈등을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갈등이 있음에도 여전히 인간과 세계는 시를 통해 합일하는 지점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갈등이 문제시될 따름이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과 세계 간의 동일성을 합리화하기 위해, 서정적 자아가 보이는 경험의 추이를 차례차례 따라간다. 해석에서의 순차성은 여기에서 발생한다. 서정적 자아가 이르게 되는 동일성의 경지를 이해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독자는 확고한 인과관계 아래 서정적 자아의 경험 양상을 순서 지어 놓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파악되는 동일성의 경지는 어디까지나 독자의 입장에서 이해 가능한 방향으로 사용한 순차적인 해석의 결과이다. 그리고 이 순차적인 해석 과정을 성립시키는 결정적인 요소가 ‘극복의 논리’이다. 서정적 자아의 동일화 경험을 이해 가능한 양태로 만들기 위해 가져다 놓은 인위적인 인과관계를 서정적 자아의 동일화 과정으로 그대로 치환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극복의 논리에 기반한 독자의 해석 과정과 세계에 대한 서정적 자아의 동일성 선취 과정은 근본적으로 다른 경험의 차원에 속하는 일이다.

“죽음까지도 사는 즐거움”으로 포용하게 된 서정적 자아이기는 하지

만, 살면서 이를 감수해야만 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아픈 행복”이다. 삶이란 것이 원래 그러하다고 인정해 버리고 나면 말 일이지만, 그 인정의 순간에 다다르기 위해서 서정적 자아는 무수한 날들을 번민해야 한다. “옛책 이곳 저곳에 그어진 붉은 줄”, “툼툼이 빈 곳을 찾아가며 빼곡이 적어 내리던 치기 어린 상념”, 이 모두는 극복의 몸짓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한 인간이 본격적으로 세계와 마주치면서 겪게 된 현실의 냉혹함을 묵묵히 견디는 몸짓으로 봄이 옳다. 묵히고 묵힌 끝에서야 겨우 그것은 내 ‘삶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정적 자아가 생활의 진실에 이르는 순간은 드라마틱하게 내지는 비약적으로 세계와의 갈등을 극복하는 순간에 오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 이는 나태한 발상이기까지 하다.

글쓴이의 서정 정신은 생활의 진실을 찾는 데서 그 소임을 다한다. 있었던가 싶으면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 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될 진실을 시라는 양식을 통해 지키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인간은 세계에 대해 더 많은 부분을 보고 느끼게 되며, 그러는 가운데 세계와 자기 자신이 겹쳐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활의 진실을 찾아 나서는 순간부터 서정적 자아의 삶에서 평화로운 시간과 화해로운 공간은 기대하기 힘들다. 실제 우리의 구체적 일상으로부터 서정적 자아의 삶 또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고 곱끄러운 시간들을 견디다 보면, 내 삶의 일부로 비루한 삶 또한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 이를 서정적 자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죽음까지도 사는 즐거움으로 부동켜 안은 청년의 아픈 행복을 나는 두 눈을 감아 아직도 손바닥 밑에서 고요히 뛰고 있는 내 정열의 옛집에서 똑똑히 엿들었다.” 고요하나 아직도 요동치고 있는 갈등의 흔적들을 견디고 인정함으로써 서정적 자아는 순순히 세계와 하나가 되어 만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서정 정신의 본질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이제 서정 정신을 보다 본격적으로 사회로 내보낼 때다.

Ⅲ. 서정 정신과 서정적 자아의 실천

서정적 자아라고 칭해지는 순간, 시인은 시를 쓰는 이로서 자기 정체성을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서정적 자아라는 정체성이 사회 속에서 발현될 때 서정 정신은 그의 의식 너머에까지 효용을 떨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은, 서정적 자아가 시를 자기의 의식에 가두지 않고 서정 정신으로써 사회를 변혁하고자 할 때 특히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로 서정적 자아의 서정 정신이 사회를 어떻게 변혁해 나갈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상을 그려내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를 매개로 한 서정 정신은 다음 두 측면에서 우리 삶을 변경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우선, 동일성의 원리에 기반한 서정 정신은 주관적 발화인 동시에 공주체적 발화(co-subjective speech)를 통해 표명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서정시를 정의하면서 시행을 통한 발화를 꼽고 그 발화의 조건으로 의미의 내포성을 제시한 시학자도 있지만,¹³⁾ 그 때의 내포성은 비단 어느 한 개인의 주관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이기에 생기는 자질은 아니다. 스스로의 무게와 가치로 현현되는 언어가 바로 시적 언어이며 이 언어에 의해 시성(poeticity)이 마련됨을 의미의 내포성으로 설명한 것이라 파악된다.¹⁴⁾ 그러므로 이 때의 시적 발화가 한 개인의 주관에 갇힐 경우, 그것의 효용이나 가치는 오히려 떨어지게 된다.

앞선 시(임화의 「오늘밤아버지는퍼렁이불을덥고」)에서 서정적 자아는 소년과 소년의 아버지가 엮어 가는 삶에 주목하면서, 때론 소년의 시선으로 아버지와 세상을, 때론 소년의 아버지가 가질 법한 시선으로 아들과 세상을 바라본다. 그리고는 그들의 육성을 빌어 시를 써내려 간다. 아들

13) D. Lamping, 장영태 옮김, 『서정시: 이론과 역사』, 문학과지성사, 1994, 38~40면.

14) 시텍스트를 담론 체계로 볼 경우, 시의 언어를 일상 언어와 달리 그 이면에 의미를 숨기고 있는 외적 실체로 보기보다는, 텍스트가 그 자체 내 관계들의 결(texture)을 형성하면서 역동적으로 의미를 생성하는 구조적 실체로 봄이 더 타당하다(R. Scholes, *Semiotics and Interpretation*, Yale University Press, 1981, pp.12-13).

인 네가 자기 삶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나는 밥을 입에다 넣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서정적 자아의 고립된 발화 안에 머물지 않는다. 사랑스러운 아들을 그리며 부르는 아버지의 목소리 그 자체인 것이다. 이와 같은 예는 다른 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過去—

그는이마을을 지나가는 더빙머리 길손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늙고가난한 홀어머니 와 드을에 나가 풀을씻고
치량한 썩국새우름 드을에 울어올때
그曲調맞춰 노래만 불으든그에게야
오호, 나어린 그에게야 어이알었스라, 그말의뜻을…….

◇

三年 뒤—

이마을에도 짜스한 봄빛은 차저왔다.
낮이면 그는 들에나아가 땅을파고
저녁이되면 가가거겨 를배운다.
그러나, 해마다 파는 그땅속에서
다만 飢渴과 恐怖의 生活苦만을 파헤칠때
오— 그에게도 그가슴에도 새싹이튼다네—
아지랑이썩 하늘저편 머—리멀리
그언젠가 이마을을차저왔든 길손 손을 생각하고
軟弱한 그가슴에도 한낱깨달음이 솟서나다, 솟서나다.
邪惡과 虛飾을 찌나, 人間生活의 集點을쏘아내는
偉大한科學者 보다도 더큰불로지즘—
— 나는 가난한農夫의 자식이다
파고파는 이흙속에서 엮는 것이 무엇인가……
오… 그의 말리올터라

(…後略…)

— 윤근강의 「荒野에움뚫는새싹들」 부분

(…前略…)

彈兄아.

사라지는 안해의 령이 설게도 그대의身邊을 찌나갈때

마지막 부탁이 무엇이드냐. 가슴을 염이고 뼈에 설이느—.

울분에 찬 恨만흔 靑은半生의 자취를 그대의 더운가슴에 찍어노코 갈때

끼치노은 눈물의記錄—을 한 페—지 두페—지 고요히 덮혀주는 그대의

주먹이 얼마나 떨어뜨드냐.

(…後略…)

— 김해강의 「慰詞-동모彈 炳昊」 부분

전자의 시는 과거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 더벅머리 길손의 이야기로 부터 시작된다. 화자가 주시하는 “그”는 그러나, 이 길손의 이야기를 이상하다 여기고 말 뿐이다. 홀로 된 노모를 모시며 가난한 살림살이를 경영하는 일이 전부인 그에게 있어서 삶이란, 들에 나가 풀을 뜯다 뺨 국새 울음 울러오면 그도 따라 자연스럽게 그 곡조에 맞춰 노래를 흥얼거림과 같다. 다시 말해 작위나 인위를 거부해도 좋은 만큼 세상의 순리에 입각해 그도 따라 함께 흘러감이다. 그러나 나이 어린 그가 글자도 깨쳐 가고 해마다 변함없이 땅을 파는 가운데 성장을 거듭해도, 정작 그 자신은 해마다 파는 그 땅 속에서 굶주림과 목마름만을 파헤치고 있을 때, 생활고가 공포스러움에 이름은 물론이요, 그의 미약했던 가슴 속에서 “새싹”과 같은 일련의 자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서정적 자아의 말을 통해 드러난다. “깨달음이 솟아나다, 솟아나다.”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서 자신이 감내해야 했던 삶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자신이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던 세상의 순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서정적 자아의 발화를 통해 부르짖음이 되어 표출된다. 서정적 자아의 발화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길손의 목소리, 그 목소리에 감응하게 되는 ‘그’의 상심 어린 울부짖음이 한데 공존하고 있는 셈이다. 후자의 시를 보더라도, 남편을 두고 홀로 떠나가는 아내의 영혼이 설움으로, 가슴 여뭍으로, 뼈에 서리는 울분으로 서정적 자아의 발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아내의 자취를 자기 신변으로부터 떠나 보내야

하는 남편의 가슴앓이가 서정적 자아를 통해 눈물의 기록으로 남겨지고 있다. 아내의 영혼인 동시에 남편의 가슴이 되고 있는 서정적 자아는 그러므로 결코 단일한 주체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정적 자아의 발화는 주관적 발화인 동시에 공주체적 발화의 성격을 띤다. 모든 심적인 상태를 분석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온갖 상이한 정신 속에 들어가 동일성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이가 바로 시인, 서정적 자아로서 그의 정체성인 셈이다.¹⁵⁾ 그래서 서정적 자아는 의외로 그를 제외한 타인과 상당히 유사한 면모를 지닌다.¹⁶⁾ 그리고 이와 같은 특성은 시 쓰기가 갖는 사회문화적인 실천력을 통해 인간의 삶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서정적 자아의 정신과도 부합하는 면이 있다. 시를 통해 의사소통에 성공하는 한 서정적 자아와 그를 제외한 타인은 완전한 타자일 수 없으며,¹⁷⁾ 이는 서정적 자아가 발견한 생활의 진실이 사회 속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서정적 자아의 시 쓰기는 독자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지, 배타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게 된다.

이와 같이, 글쓴이의 서정 정신은 서정적 자아의 정체성이 사회 속에서 확인됨으로써 그것의 실체를 부여받는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 내지는 시의 사회적 기능을 판단함에 있어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관행이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정치적 전언이나 도덕적 교훈으로 사회적 기능의 여부를 판가름한다는 사실이다. 그도 아니면 현실 재현의 측면을 염두에 두고 산문과 대비한 결과 그 여부를 판가름하는

15) 페소아(Fernando Pessoa)의 발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M. Hamburger, 이승욱 옮김, 『현대시의 변증법』, 지식산업사, 1993, 178면).

16) 같음이 아닌 '유사함'에 주의를 두어야 한다. 독립적인 개체들이 서로 유사하다 함은 다름과 같음이 두 개체 사이에 동시에 공존함을 의미한다. 이는, 다름에 입각한 고유한 개체들이, 같음에 입각한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개방적인 관계 맺음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17) D. Davidson, *Inquiries into Truth and Interpretation*, Clarendon Press: Oxford, pp.197 ~ 200. 인간은 다양한 문화 안에서, 복수의 인성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남들과 같아지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Eric Fromm, *The Fear of Freedom*, London: Routledge, 1960, p.160).

경향이다.¹⁸⁾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전자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이는 적어도 시라는 장르의 자율성을 인정한 결과에서 나온 해석으로 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의 사회적 기능을 판단함에 있어서, 서정적 자아의 발화 내용 차원에서 나아가 발화 형식 자체가 사회적 실천력을 담보하고 있음을 파악할 때야 그 판단이 정당할 수 있다. 그러한 시각에서 본고는 서정적 자아의 또 다른 사회적 실천력을, 동일성의 원리에 기반한 서정 정신이, 존재하는 세계와 존재해야 할 세계를 동시에 표명한다는 점에서 찾고자 한다. 이는 다음의 시를 통해서 설명해 볼 수 있다.

(…前略…)

노래하기에는 너무도 늙은 사실이외다
 百日紅가치 붉게 붉게 피지도못하는꽃을
 국화와가치 오래 오래 피지도못하는꽃을
 모진비바람 맞나 흐터지는 가엾은꽃을
 노래하느니 차라리붓들고 울것이외다

×

그러나 진달래꽃은 오라는봄의모양을 그머리속에 그리면서
 찬바람 오고가는 산허리에서 오히려우스며 말할것이외다
 『오래 오래 피는것이 꽃이아니라
 봄철을 먼저아는것이 정말 꽃이라』고—

—一九三〇年三月—

— 여수의 「너머도 늙은 사실 - 봄의 先驅者 「진달래」를 노래함」 부분

노래하기에는 너무도 슬퍼 노래하느니 차라리 붓들고 울 것이라는 선언이 무색하게, 시인은 지금 노래하고 있다. 자기 원만큼 보다 더 붉게, 보다 더 오래, 보다 더 강하게 피지 못하는 꽃과 같은 삶이 시인이 생각하는 인간의 현재 삶이라는 것은, 이 시를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시에 시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도 있다. 그

18) J. P. Sartre, 김봉구 옮김, 『문학이란 무엇인가』, 삼성출판사, 1976, 373면.

가없는 꽃이 “오히려 웃으며” “오래 오래 피는 것이 꽃이 아니라 봄철을 먼저 아는 것이 정말 꽃이라.”고 할 것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봄계, 오래도록, 강하게 피어나는 꽃으로 사는 일이 좌절되는 현실과 더불어, 봄철을 먼저 알림으로써 꽃으로서 진정한 자기 존재를 찾을 수 있다는 미래를 비약적으로 병렬시켜 놓음으로써, 시인은 현실 너머 미래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게끔 한다.¹⁹⁾ 이는 서정 정신을 통해 사회에 대한 인간의 희망이 존재케 되는 방식인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대한 또 다른 이해를 위해서는 이보다 앞서 인용된 시(임화의 『옛』)를 떠올려 보아도 좋다. 믿었던 동지마저 신뢰를 저버리는 현실 앞에서 서정적 자아가 보이는 대응의 방식이 그것이다. “절망의 슬픈 노래”를 피해 서정적 자아는 베개에 자신의 머리를 파묻는다. 그런데 병들어 흐득이는 서정적 자아의 가슴에 베개는 “노래의 속삭임”이 아닌 “행진의 발자국 소리”를, 어둠은 “별빛”이 아닌 “태양의 열”과 “눈부신 광채”를 안겨 준다. 그래서 서정적 자아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아직도 뛰고 있는 정열이 있기에 청년의 아픈 행복도 있는 것이라고.” 다시 말해 “어둠”으로 상징되는 현존하는 세계와 “태양의 열”과 “눈부신 광채”로 상징되는 현존해야 할 세계를 동시에 비약적으로 병치시켜 보여 줌으로써, 서정적 자아는 서정시가 담보해 낼 수 있는 고유한 사회적 실천력을 확보하게 된다. 왜 그런가.

만일 위의 서정적 자아가 신의를 저버린 동지로 인해 이 세계는 어차피 비극일 수밖에 없다며 현실 자체만을 보는 데 머물렀다면, 그가 썼을 시는 그 자신에게도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정한 세계를 서정적 자아가 온전히 전유했을 리도 만무하다. 절망적 현실 너머에 있는 행진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비극의 세계 너머 작열하는 태양의 열과 광채를 볼 수 있는 이이기에, 서정적 자아는 세계 속에서 청년으로서 자기 미래의 행복을 꿈꿀 수 있는 것

19) 서정 정신이, 고통을 주고받는 객체와 주체 간의 비우호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을 때, 그 서정적인 의식 자체가 실천력을 띠게 된다(Klaus Briegleb, “Fragment über ‘Politischen Lyrik,’” In Text und Kritik, München, 1984, S.2).

이다. 서정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 존재하는 세계와 존재해야 할 세계를 동시에 표명함으로써 현실을 딛고 일어난 한 개인이 세계와의 합일점을 찾게 해주는 데 있는 것이다.

시가 문학으로서 그것의 본질을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쓰일수록 시가 지닐 수 있는 사회 변혁의 효과는 그만큼 떨어진다. 시와 같은 미적 영역의 특성을 자율성에 두고, 자율성만이 억압적인 사회에 저항할 힘을 획득할 수 있다는 논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설득력을 얻는다.²⁰⁾ 그것의 효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그것 스스로 최고 효용을 발휘한다는 역설 또한 이러한 경우를 두고 가리키는 말이다. 물론 이러한 시각의 한 단면은 시를 신비화하는 역효과도 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보다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시와 사회적 실천력과의 관계가 간접적일수록 시는 그 사회적 실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논지일 것이다. 그리고 이 때의 실천력은 현실 너머의 현실을 바라보는 이가 펼쳐 보이는 전망과도 같다.

시가 당장에 우리 인간의 삶을 변경해 내지는 못한다. 보다 솔직히 표현하면 우리 인간의 삶 전부를 드러내 보이지도 못한다.²¹⁾ 그러나 그 변혁의 가능성만은 잠재돼 있다. 바로 이 점을, 시인이 서정적 자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글쓰기 행위를 통해 사회로부터 부여받는 과정에서 타진해 보았다. 글쓴이의 서정 정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언제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서정 정신은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적 실천력을 담보해 가는지 등을 답해 온 과정이 그것이다. 서정 정신은 삶 자체를 묵묵히 견디고 인정하는 가운데 생활의 진실을 발견해냄으로써 세계와의 동일성에 한 걸음 가까이 간다. 그리고 이는 서정적 자아의 공주체적 발화를 통해 공감의 보편성을, 존재해야 할 세계에 대

20) 이와 같은 맥락에서 브레히트의 교훈적인 희곡보다는 보들레르나 랭보의 시에, 훨씬 더 큰 변혁의 가능성을 가진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H. Marcuse, 박순광 옮김, 『예술의 미학적 차원』, 영학, 1982, 19~20면).

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르노는 정직한 개체화에 의해 서정시의 작품은 그 보편성이 기대된다고 말한다(T. W. Adorno, 김주연 옮김, 『아도르노의 문학이론』, 민음사, 1992, 12면).

한 전망을 통해 미래의 확신을 담보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 속으로 확산될 수 있는 사회적 실천력을 얻는다. 그래서 본고는 서정 정신이 우리의 삶을 부단히 변모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IV. 결 론 - 시학과 교육학의 만남

‘詩學’이라는 기조 아래 인간이 추구하는 바는, 비단 문학에 한정지어 문학의 논리로써 문학만의 자질을 논하는 데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시를 우리 삶 안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 인간과 시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지점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왜 시를 필요로 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으로부터 시학은 쓰이기 시작해야 한다. 시학은 우리 삶을 반성하는 과정에서 쓰여지는 인간과 삶에 대한 논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글 또한 이상과 같은 시학에 대한 소박한 염원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抒情詩’ - ‘抒情性’ - ‘抒情的人間’으로 엮여지는 일련의 순환 고리 안에서 사고함으로써 그 일차적인 해답을 얻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본고는 시학 일반론을 지양하고, 작품 안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서정적인 자질들에 주목하였다. 특히 시인의 세계관으로 서정 정신을 상정, 이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이는 글쓴이로서의 시인이 서정적 자아라는 자기 정체성을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 내는 지로 초점화하여 기술하였다. 그 결과, 동일성의 원리에 기반한 서정 정신의 본질은 ‘생활의 진실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었으며, 이는 인간이 자기 삶을 묵묵히 견디는 가운데 ‘인정’의 차원에서 맞게 되는 순간으로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글쓴이의 서정 정신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기 위해, 그 양상을 서정적 자아의 정체성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초점화하였다. 그 결과, 서정적 자아는 공주체적 발화를 통해 공감을, 존재해야 할 세계에 대한 전망을 통해 미래의 확신을 선취함으로써, 글쓴이의 서정 정신, 보다 구체적으로 서정

적 자아로서 그의 정체성이 사회 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 실천력을 획득하고 있었다.

문제는 다시, 서정 정신이 지니는 사회적 실천력이다. 이는 본고에서 현대 서정 시학이 자리하는 차별화된 지점을 모색한 결과 얻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선형적으로 주어진 통일된 자아상을 기대하기 힘든 현대의 사회 논리 속에서, 서정 시학 교육을 통해 구하는 이상적 인간, 그는 결코 작품 속에 고립된 개별적 자아가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관계아(關係我)를 가진 사람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탈구조주의의 논리 속에서 우리의 자아는 해체된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이는 돌려 생각해 보면, 관계아를 가진 모습으로 이해해 봄도 가능하다. 이로 보건대, 서정 시학의 기본 원리로 정착된 동일성의 원리라는 것이 자칫 세계에의 합일을 추구하는 인간의 일방적인 몸짓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으나, 기실 동일성을 인식하는 근거에는 세계와의 부단한 관계 맺음을 통해 그것의 구조를 변혁시킴으로써 보다 이상적인 지점에서 나와 세계의 합일점을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이 잠재돼 있다. 그 노력과 맞물려 세계도 인간도 자신의 구조를 변혁시킬 수 있을 것이다.²²⁾

그러므로 서정 정신은, 비단 시학의 차원에서만 효용되는 이야기기가 아니다. 우리 삶에 보편적으로 수용되어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할 태도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서정적 자아로 칭해지는 한 인간의 정체성은 교육될 가치가 있는 내용으로서의 위상을 지닌다고 판단한다.

22) 다원화로 칭해지는 분절화된 현대 세계의 조건 아래서 ‘나’라는 정체성은 단독적으로 존립하는 가운데 추구될 수 없다. 다른 ‘나’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또 그로부터 자신의 생활권을 보장받는 상생의 모형을 기반으로 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서정적 자아는 강점을 보이는데, 서정적 자아의 본질상 그는 ‘관계’ 그 자체에 대한 전념(commitment)을 보이기 때문이다(P. L. Berger et als., *The Homeless Mind: Modernization and Consciousness*, New York : Random House, 1973.).

<참고 문헌>

【자료】

김성운 편, 『카프시전집』 1, 시대평론, 1988.

김성운 편, 『카프시전집』 2, 시대평론, 1988.

【논문 및 단행본】

김상호, 『태도교육』, 교육과학사, 1987.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95.

김현 편, 『장르의 이론』, 문학과지성사, 1987.

윤여탁, 『리얼리즘시의 이론과 실제』, 태학사, 1994.

윤여탁, 『시의 논리와 서정시의 역사』, 태학사, 1995.

최동호 편저, 『현대시창작법』, 집문당, 1997.

Adorno, T. W., 김주연 옮김, 『아도르노의 문학이론』, 민음사, 1992.

Adorno, T. W., Gesammte Schriften 7., Ästhetische Theorie,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1972.

Berger, P. L. et als., The Homeless Mind: Modernization and Consciousness, New York : Random House, 1973.

Briegleb, K., “Fragment über ‘Politischen Lyrik’,” In Text und Kritik, München, 1984.

Davidson, D., Inquiries into Truth and Interpretation, Clarendon Press: Oxford, 1984.

Fromm, E., The Fear of Freedom, London: Routledge, 1960.

Giddens, A., 권기돈 옮김,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새물결, 1997.

Hamburger, M., 이승욱 옮김, 『현대시의 변증법』, 지식산업사, 1993.

Hanson, N. R., Observation and Explanation, New York: Harper & Row, 1971.

Heidegger, M., “Hölderlin und das Wesen der Dichtung,” Erläuterung zur Hölderlin Dichtung, Vittorio Klostermann, 1981.

Hernadi, P., 김준오 옮김, 『장르론』, 문장, 1983.

Jaspers, K., 황문수 옮김, 『비극론 · 인간론』, 범우사, 1990.

- Kayser, W., 김윤섭 옮김, 『언어예술작품론』, 대방출판사, 1982.
- Kerby, A. P., “The Language of the Self,” *Philosophy Today*, Fall, 1986.
- Kuhns, R., *Literature and Philosophy*, Routledge & Kegan Paul, 1971.
- Lamping, D., 장영태 옮김, 『서정시: 이론과 역사』, 문학과지성사, 1994.
- Lasch, C., *The Culture of Narcissism*, London: Abacus, 1980.
- Lasch, C., *The Minimal Self*, London: Picador, 1985.
- Marcuse, H., 박순광 옮김, 『예술의 미학적 차원』, 영학, 1982.
- Rorty, R., *Philosophy and the Mirror of Natur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 Sartre, J. P., 김봉구 옮김, 『문학이란 무엇인가』, 삼성출판사, 1976.
- Scholes, R. *Semiotics and Interpretation*, Yale University Press, 1981.
- Staiger, E., 이유영 · 오현일 옮김, 『시학의 근본개념』, 삼중당, 1982.
- Wood, M. R. and Zurchner, L. A., *The Development of a Postmodern Self*, New York: Greenwood, 1988.

<초록>

서정 시학 교육을 위한 서정 정신 연구

구 영 산

이 글의 목적은 국어교육의 내용으로서 서정성을 재정립하는 데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고는 서정 시학 일반론을 지향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서정적인 자질들에 주목하였다. 특히 시를 쓰는 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서정적 자아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찾았던 임화의 시를 중심으로, 일군의 카프 계열 시들에 주목하여, 글쓴이의 세계관으로서 서정 정신이란 무엇인지, 이는 글쓴이의 정체성 구현 차원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기술함으로써 본고에서 제시한 문제를 초점화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본고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우선, 글쓴이의 서정 정신은 서정적 자아로서 자기 삶 속에서 발견해 내는 생활의 진실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진실의 발견은, 기존의 논의에서 보이듯 극복의 차원에서 비약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서정적 자아가 자신이 기반하고 있는 삶의 구체적 국면 하나하나를 인정하고 견디는 순간에 온다고 보았다. 그럼으로써 서정 시학에서 극복의 논리가 안고 있는 초월성 내지는 비현실성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이는 서정 정신에 잠재된 사회적 실천력을 환기하고자 한 본고의 의도와 맞물려 있는데, 이 점은 서정적 자아라는 글쓴이의 정체성이 시를 통해 구현되는 양상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첫번째로 서정적 자아의 발화를 주관적인 동시에 공주체적 발화로 봄으로써, 사회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말로서의 실천력을 담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두번째로 서정적 자아는 존재하는 세계와 존재해야 할 세계를 동시에 드러낸다고 봄으로써, 이러한 전망이 사회 속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서의

실천력을 가질 것임을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서정 시학을 다시 씬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당대의 실천력에 착목, 이를 서정시를 생산해 내는 글쓴이의 자기 정체성의 문제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는 보다 넓게는 서정성을 매개로 서정시와 서정적 인간이 함께 하는 자리로부터 서정 시학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보다 좁게는 글쓴이의 정체성 구현을 통해 나와 사회의 구조를 변혁시킴으로써 보다 이상적인 지점에서 인간과 세계가 ‘동일성’을 이루려는 노력으로 서정 시학의 문제를 풀고자 한 동기가 있었음을 밝혀 둔다.

【핵심어】 서정 시학 교육, 서정성, ‘동일성’, 정체성, 태도, 서정 정신, 서정적 자아, 삶의 진실, 인정, 공주체적 발화, 공감, 전망, 미래에의 확산, 사회적 실천력, 삶의 변화

<Abstract>

A Study on the Lyric Spirit for Education of Lyricism

Goo, Young-san

This study goes to reconstruct lyricism as a content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method to solve out this problem is not in the generalization of lyricism. Instead of that, the method of this study is in the concretion of lyric attributes found in the individual works. Especially,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poets of KAPF including ‘Lim, Hwa’ who pursued his identity as a poet in recovering lyric self. Then, this study gave a solution to the above problem, by answering to the following focalized questions, ‘What is the essence of lyricism?’, ‘How it can be presented through the writing poems with revealed writer’s identity?’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goes as follows. To begin with, writer’s lyric spirit exists for finding life truth in our own lives. The phase of discovery does not comes from overcoming the conflict between the human and the world as mentioned in the previous researches, but from cognizing and enduring the truths to life. By coming to the above problematical point, this study intended to point out the transcendence or unreality in traditional poetics.

This intention meets the purpose of this study that was going to rouse people to be conscious of social engagement in lyricism. This study discussed it in a way of exhibiting writer’s identity as a lyric self through the poems. Firstly, this study suggested that lyric self’s speech derives social engagement as a common sympathy from society, judging from the fact that lyric self’s speech is both subjective and co-subjective speech. Secondly, this study emphasized that the prospect derives social engagement as people’s becoming optimistic from

society, judging from the fact that lyric self reveals the world which both exists and should exist.

In conclusion, this study searched into the writer's identity who produces lyric poetry, sticking to the contemporary engagement that should be oriented in reconstructing lyricism. This solution was originated from the judgment that lyricism should be discussed in the field of coexisting of lyric poetry and lyric human. Also, it was originated from the position that lyricism should be understood as a try of making 'Identity' in the more ideal spot by changing the world and me through the constructing his or her identity.

【key words】 Education of Lyricism, Lyricism, 'Identity', Identity, Attitude, Lyric Spirit, Lyric Self, Truth of Lives, Cognizance, Co-Subjective Speech, Sympathy, Prospect, Optimism, Social Engagement, Shift of Lives